



충성대신보



▲ 제34대 학교장으로 취임한 여운태 소장(우)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좌)으로부터 부대기를 받고 있다.

제34대 학교장 여운태 장군 취임

자유롭고 유연한 조직을 위한 화합과 단결 강조

지난 12월 9일 본교 충성연병장에서 제33대·34대 학교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제33대 학교장 장달수(3사 21기) 소장이 이임하고, 제34대 신임 학교장으로 여운태(육사 45기) 소장이 취임했다.



육군참모총장(대장 남영신)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이·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외부인사의 참석 없이 학교 장병 및 사관생도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보직교대 신고에 이어 본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명령 낭독 ▶부대기 이양 ▶참모총장 훈시 ▶이·취임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었다.

참모총장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헌신의 노력으로 미래 육군을 이끌어갈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학교교육혁신을 추진한 장달수 장군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충성대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뛰어난 특별한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충성대만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우수한 인재양성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임하는 제33대 학교장 장달수 장군은 "사관생도들은 통일시대를 선도해나갈 국방의 주역으로서 우리 군의 미래이자 희망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군사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인성과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함양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부하들로부터 존경받는 멋진 장

교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제33대 학교장으로 취임한 여운태 장군은 "육군의 미래를 선도할 정예장교 양성이라는 숭고하고 참으로 가치 있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혼자만의 다짐이 아닌 모두가 원팀이 되어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결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것이며, 구성원 모두가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생활화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미래 육군을 선도할 육군3사관학교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국

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충성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신임 여운태 학교장은 육사 45기 출신으로서 제11기계화보병사단 20기계화보병여단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제53보병사단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역임하였으며, 화합과 단결을 위한 소통 능력을 갖춘 덕망 있는 장군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날 이임한 장달수 장군은 인사사령부 정책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중령 고성진, 임문택

지면안내

- 02 학교소식 | 충성대 리더십 세미나 개최
- 03 학교소식 | 충성대 연구소 교육프로그램 개발
- 04 생도광장 | 학교 상징물 시리즈-1
- 05 생도광장 | 추천명화 · 5부회 소개
- 06 오피니언 | 사설 · 충성대칼럼
- 07 오피니언 | 사회 저명인사칼럼 · 독서서평
- 08 독자투고 | 김병주, 이명찬 교수(영남대)
- 10 교양 | 건강상식 · 명문가를 찾아서
- 11 동문소식 | 동문(同門)의 소리 / 우보환
- 12 발전기금 | 발전재단 소식

(사진제공) 병장 김요한
 병장 이무상
 일병 변준연

생도들의 리더십 함양과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충성대 리더십 세미나 개최



▲ 웹엑스(Webex)를 활용한 언택트 방식으로 충성대 리더십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화상 체계로 야전-학교 간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성과 거둬

학교는 지난 13일 교내에서 생도들의 리더십 함양과 지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사관생도, 훈육요원 1,0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충성대 학술 및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웹엑스(Webex)를 활용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교장(소장 장달수)을 비롯한 사회자, 간부들은 학교 이무표실에 위치하고, 주제 발표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 및 부대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생도 및 훈육요원들은 각 중대 교양실에서 세미나 중계 영상을 관람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 웹엑스(Webex) : 노트북 및 모바일 등에서 활용 가능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이날 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세션은 박보람 대위(생도대 훈육장교)가 '사관생도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을, 이지승 소령(진)(21사단 중대장)이 '사관생도의 정체성과 이에 부합되는 역할'을 각각 발표했다. 2세션은 문시준 대위(50사단 중대장)가 '초급장교에게 요구되는 행동적 리더십'을, 김영민 대위(12사단 중대장)가 '중대급

이하 제대의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으로 각각 발표한 후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세미나는 발표자들이 야전에서 근무하며 겪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발표함으로써,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여 소대원들을 직접 이끌어야 하는 사관생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학교장(소장 장달수)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비롯하여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미래형 리더십을 겸비한 정예 사관생도 양성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참석자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통해 3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의 올바른 품성과 리더십이 함양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사관생도 김영재(56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제 야전에서 요구하는 리더십 덕목과 정예장교로서 지녀야 할 역량에 대해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임관 전까지 심신단련과 학업에 정진하여 미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령 장윤성 대위 이지수

2020년 연말을 마무리하는 초빙강연



▲ 삼보모터스(주) 이재하 회장(10.23) '올바른 리더십'



▲ <코로나 시피엔스>의 저자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10.29) '포스트코로나: 교육적 소통의 법칙은 변하고 있는가?'

※ 연말 초빙강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촬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무관 이경 희

제10회 전국대학생 국방정책 우수논문 발표대회 은상 수상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방부가 후원하고 한국위기관리연구소와 육군학생군사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0회 전국대학생 국방정책 우수논문 발표대회에서 박제범 생도(57기)가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 한국위기관리연구소(KICA) : 국가적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련 법규, 제도, 조직 및 업무수행 절차를 연구 발전시키기 위하여 08년도 도입규 전 육군참모총장을 초대 이사장겸 연구소장으로 설립됨

제10회 전국대학생 국방정책 우수논문 발표대회는 전국의 대학생들과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통일한국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변화 욕구와 안보의식을 국가발전의 동

력으로 전환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안보관 정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으로 당초 우수작을 대상으로 논문 발표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시사만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박제범 생도는 '코로나19가 군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방안 :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제출하여 전체 2위인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상금으로 받은 50만 원은 전액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한편, 박제범 생도는 수상 소감을 통해 "평소 안보와 국방, 통일 문제를 공부하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의 역군으로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관생도가 되겠다"고 했다. **중령진 손창호**



▲ 57기 박제범 생도가 상금 50만원을 기부한 뒤 이공학처장(중령 한덕수)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본교,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주무관 길진 규



▲ 경북도립대 학술교류협정 체결(10.20)



▲ 드론센터 업무협약 체결(10.23)



▲ 영천여고 업무협약 체결(10.23)



▲ 성호그룹 업무협약 체결(11.16)

다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軍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충성대연구소, 다문화적 가치 존중 교육프로그램 최초 개발

학교 충성대연구소 다문화연구실장(중령 송경재)은 지난 11월 13일, 청운관에서 진행된 '학교발전 연구과제 발표회'를 통해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적 가치 존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했다.

충성대연구소는 최근 다문화 가정 출신 입대자원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장병에 대한 수용과 존중의 軍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다문화적 가치 존중 교육프로그램 개발/효과검증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다문화적 가치 존중'에 대해서는 각 군 사관학교 중에서 학교가 유일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은 임관 후 야전에서 다문화 장병들을 통솔해야 하는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입증하여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이 쉽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다문화적 가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간부들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에도 용이하다.

교육은 총 5교시(1교시당 90분)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①다문화의 정의와 유형 ②다문화와 군대 문화 ③다문화적 가치 이해 ④Together(이해, 존중, 배려하는 군 생활) ⑤다문화 리더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성대연구소장(대령 이진호)은 "이번에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은 사관생도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군 다문화연구의 중심이 되어 성과 있는 연구와 정책적 제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성대연구소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다문화 연구실'을 구성하여 다문화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해왔으며, 2018년에는 '군대 내 이중문화 장병의 군 생활 적응과 관련된 보호 요인과 위험요인 도출 연구' 논문을 한국군사회복지학(KC 등재지)에 게재함으로써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발표한 '다문화적 가치 존중 교육프로그램 개발/효과검증 연구' 또한 한국군사회복지학회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중령 송경재



▲ 충성대연구소 다문화연구실장 송경재 교수(오른쪽 첫 번째)가 다문화적 가치 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을 함께 진행한 장유정 교수(왼쪽 첫 번째), 김인찬 교수(가운데)와 '다문화적 가치 존중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단어인 '존중, 배려, 수용'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학술교류 협정대학 교류 방문 행사

생도 홍보, 우수 인력 확보, 상호 교류 증진 방안 논의

지난 11월 2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학교장(소장 장달수)은 사관생도 입시 홍보와 우수자원 유치를 위한 학술교류 협력재단 교류방문 행사를 가졌다.

2일 대구과학대(박준 총장), 5일 대경대(이채영 총장)를 방문한 학교장은 총장과 함께 학교 간의 상호교류 증진, 우수인력 확보, 학술교류 증진 방안 등 교류협력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육군3사관학교와 대구과학대는 지난 1991년 자매결연, 2013년 학술교류협정, 2019년 레인보우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적·물적·학문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대경대와는 지난 2008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이후부터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학교장(소장 장달수)은 "앞으로도 학교와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서로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나누면서,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무관 김민수



▲ 대구과학대학교 방문(11.2)



▲ 대경대학교 방문(11.5)

가상 마라톤 대회 실시로 체력 Up 스트레스 Down

충성대신문사, 언택트시대 신개념 체력 단련 프로그램 열어

지난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총 23일간 충성대신문사 주관 가상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가상 마라톤 대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출타가 제한되는 사관생도들의 병영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생도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통해 활기찬 생도 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했다.

* 가상 마라톤: 사람들이 한곳에 모이지 않고 신청자들이 일정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개별적으로 뒀 후 기록을 인증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

총 122명의 사관생도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생도들이 교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달린 거리를 기록으로 측정하고 집계된 자신의 순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 가상마라톤 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되었으며, 총 누적 거리를 산출하여 대상 1명, 최우수 4명, 우수 10명을 선정했다.

마라톤 실시결과, 57기 신주영 생도가 누적 기록 468km 전제 1위로 대상을 수상했다. 그 뒤를 이어 56기 최정우

(310km), 강인구(257km) 생도, 57기 김도윤(411km), 조형진(411km) 생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우수상은 56기 최분수(243km), 윤서규(240km), 이성진(230km), 서동현(226km), 이완현(224km) 생도, 57기 유영재(368km), 현지섭(333km), 양병찬(310km), 임종윤(308km), 정민기(290km) 생도가 수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육군3사관학교장 상장과 기념품이 지급되었으며, 150km 이상의 누적 기록을 달성한 인원 35명에게도 완주증을 수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대상을 수상한 57기 신주영 생도는 "좋은 취지에서 실시한 마라톤 대회에 1등을 목표로 도전하였고, 주변 동기들과 선배들의 응원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체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56기 기자생도 최정운
57기 기자생도 지하은

학교 상징물 시리즈 - 1

충성연병장과 성화대



충성연병장

충성연병장은 50여 개의 기수가 생도로서 첫 발걸음과 마지막 걸음을 모두 함께한, 그야말로 학교의 발자취가 깃든 곳이다. 102,810m²(약 31,100평)의 규모로 축구장 10개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잔디연병장이다.



제4대 학교장인 황영시 소장의 지휘 아래, 1975년 6월 21일부터 1977년 7월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종 장비 50,200여 대와 병력 28,700여 명을 동원하였다. 2년여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육군3사관학교 창설 이래 가장

큰규모의 공사로 기록되어 있다. 처음 충성연병장에서 진행된 행사는 14기의 졸업식이다. 이후 모든 기수의 입교식과 졸업식은 물론, 각종 기념행사와 체육대회가 지금까지도 실시되고 있다. 연병장의 각 모서리에는 각각 충성분, 승리분, 통일분으로 불리는 3개의 분이 각각 세워져 있는데, 이 출입분은 생도 15기의 기념사업으로 1978년 9월 8일에 완공되었다. 각각의 분은 생도들이 의식행사를 치르기 전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곳이다. 3개의 분을 통해 생도들과 모든 기간 장병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적과의 전투에서 무조건 승리하겠다는 필승의 다짐, 그리고 통일을 향한 마음을 키워나간다.

드넓은 충성연병장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크게 성화대가 보인다. 충성연병장과 더불어 학교의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는 성화대는 성화 점화를 통해 행사들을 더욱 빛낸다. 성화대는 천수봉의 정기와 겨레의 맥박으로 타오르는 충성인의 의지를 상징한다. 홍익대 박석원 교수의 설계로 1979년 4월 15일에 착공하여 동년 9월 1일에 준공되었다. 높이 13.5m, 폭 17.6m 규모로 생도 16기 졸업 기념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3천 9백여 만 원의 예산과 3천여 명의 인원, 그리고 각종 중장비가 투입된 큰 사업이었다. 성화로를 받치고 있는 16개의 받침대와 성화대를 이루고 있는 16개의 기둥은 16기 졸업생들이 조국의 영원한 광명을 밝혀 주고 온누리의 평화를 지켜주는 굳은 결정체임을 상징한다. 또한, 2007년에는 경유사용방식에서 가스에 의한 자동 점화방식으로 전환하여 성화 점화가 더욱 용이해졌다. 성화대 전방에 위치한 높이 5m의 전진 상은 본교 교훈인 조

국·명에·충용의 정신을 아로새기고, 통일을 위해 조국 수호의 최선봉에 전진해가는 제16기 충성인을 나타내는 동상이다. 앞면에는 동아대 철학 교수 최승호 박사의 헌시가 동판으로 새겨져 있어 그 뜻을 더한다. 그동안 익숙하게 밟고 사용했던 충성연병장과 성화대를 떠올리며 숙연해진다. 연병장에 심겨 있는 잔디 하나에도 많은 선배 장교들과 수많은 국민의 노고가 스며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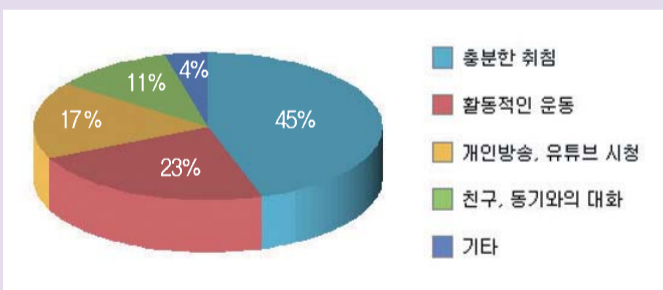
노고에 송고함, 감사함이라는 단어만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번 계기를 통해 처음 이 잔디를 밟았던 마음과 문을 나섰던 순간을 상기하며 매일의 성실함으로 모든 생도가 우리 국방의 성화(盛火)가 되었으면 한다. 56기 기자생도 금성혁 57기 기자생도 이형민 이용택



성화대

생도 앙케이트

생도들이 코로나로 인한 무기력감을 해소하는 방법



2019년보다 더 다사다난하고 고단했던 2020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에 충성대신문사에서는 2020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도들의 무기력감을 느끼는 이유와 더불어 현재 느끼는 무기력감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총 880명이 참가한 이번 투표 결과, 충분한 취침으로 스트레스 해소(45%), 웨이트, 필겔을 등 활동적인 운동(23%), 개인방송 및 유튜브 시청(17%), 친구 및 동기들과의 대화

(11%), 기타(4%)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장 많은 생도가 충분한 취침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라고 답했다. 매일 매일의 일정이

딱 차 있는 만큼 휴식과 취침은 생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무기력감 해소 방법이다. 영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한 취침 때문이 아닐까?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항목은 웨이트, 필겔을 등 활동적인 운동이다. 투표를 진행하며 운동으로 무기력감을 해소하는 생도들이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표를 받지 못했다. 그래도 많은 인원이 활동적인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며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항목은 개인이 관심 있어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며 무기력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개인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생도대 내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나 제한되는 것을 대리 만족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방송을 보며 즐거움도 얻으면서 무기력감을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친구 혹은 동기들과의 대화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강한 무기력함을 느낀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누군가와 소통이다. 친구,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을 한다는 것,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은 좋은 무기력감 해소 방안이다.

기타 의견으로 '특박이나 휴가를 기다리며 버틴다',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선물을 가족들에게 선물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생도들은 씩씩하게 코로나를 잘 이겨냈다. 앞으로 야전에 나갈 56기, 4학년이 되어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성장할 57기 모두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며 조금만 더 파이팅하기를 바란다.

56기 기자생도 송승환 57기 기자생도 이경미





추천영화 **센트럴 인텔리전스**



독서감상문

히틀러의 장군들2

구데리안 평전

저자: Kenneth Macksey

기갑장교를 꿈꾸는 사관생도들에게 하인츠 구데리안은 전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독일의 야전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군사전략가로서의 행적은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이 책을 통해 구데리안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당시 보병의 지원 장비에 불과했던 전차를 어떻게 기동전의 핵심전력으로 일으켜 세웠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학생사관이었던 그가 어떠한 교육을 통해 군사적 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읽어보니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구데리안은 학생사관 시절, 당시 프로이센 군사정권의 특징이었던 엄격한 훈련과정, 격식, 완벽한 사고방식과 행동, 유연한 자세를 터득했다. 확실적인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명령이 전달되었을 때 타협하지 않는 태도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장교의 권위라고 배웠다. 이러한 정신적 훈육 과정이 훗날 구데리안이 독일 군부에서 평범하지 않은 위인으로 성장하는 영양분이 되었던 것 같다. 독일에서 개발된 M21 전차를 조종해볼 기회가 있었던 구데리안은 전차의 약점 및 한계에 관한 성능 또한 평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구데리안은 군 경력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전차 또는 차량화되지 않은 보병과 함께 움직이는 전차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당시 독일 군부를 주름잡았던 ‘한스 폰 제트’는 구데리안의 깨달음과 동일했고 이러한 흐름은 구데리안이 고안한 핵심적 요체였다. 구데리안은 기갑부대를 인정받기 위해 이전처럼 고된 사투를 벌여야 했다. 기갑부대의 창설에 대한 제안이 있었을 때

구데리안과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루트비히 베크’와의 대화가 당시 기갑부대를 이해했던 일반수준을 알 수 있었다. 당시 구데리안은 2개의 기갑사단을 20개로 늘리고자 했고 그 부대의 지휘통제는 무선통신을 이용해 전선에서 지휘하려 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상이었기에 사단장은 지도와 전화가 있는 곳에 있어야만 한다며 반대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구데리안은 독일의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전투교리를 만들어냈다. 지상전에 있어서 전차는 더이상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될 수 있었고 전차의 진격을 위해 공군과 포병과의 제병협동을 통해 압도적인 충격력과 공세적 기동을 이어나갔다. 그 결과, 독일 전차는 유럽을 지배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전격전이다. 비록 독일은 패망하고 전범

국이 되며, 구데리안 역시 뉘른베르크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군인으로서 정당한 자세였다는 판결을 받으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 그는 저술활동과 함께 사관학교 강의를 맡았다가 독일로 들어가 서독 연방군 창설에 참여하고 1954년 바이에른 남부에서 65세를 일기로 사망한다.

구데리안을 과연 어떠한 유형의 인물로 평해야 할까 고민을 해보았다. 전쟁의 미래를 현실로 보여주었던 선견자였을까?, 전쟁에서 거의 완벽하게 구동될 장비를 창조하겠다는 기술자였을까? 아니면 최고의 장군이였을까? 구데리안은 그 자체로서 조직가와 공격적인 야전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을 충분히 입증한 것 같다. 그의 탁월하고도 완벽한 지적능력과 중압감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던 태도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전격전보다 더 배우고 싶은 자세다. 직업군인으로서 엄청나게 위험하고 복잡한 전황 속에서 임무를 수행한 그의 정신은 우리 사관생도들이 꼭 본받아야 할 자세인 것 같다. 구데리안의 명언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단지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56기 기자생도 이선빈, 57기 기자생도 황선관



감독: 로스미살터버
출연: 드웨인 존슨, 케빈 하트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영화나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영화도 좋지만, 가끔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보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스탠딩 코미디의 대가 케빈 하트와 이제 는 말이 필요 없는 액션 배우 드웨인 존슨의 케미를 볼 수 있는 영화 <센트럴 인텔리전스>다.

왕따였던 내 친구가 CIA요원이 되었다?

영화 <센트럴 인텔리전스>는 학창시절 잘나가던 학생회장이었던 회계원 켈빈 조이너(케빈 하트)가 동창회에서 학창 시절 왕따였던 CIA 요원 로비 위어덕(드웨인 존슨)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학창시절 고등학교 졸업반 켈빈은 “골든 잷”이라

고 불리며 학교 주류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어느 날 똥똥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 로비는 학교 행사 간 샤워를 하던 도중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농구장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전교생들에게 보여주게 된다. 켈빈과 그의 여자친구 매기는 로비를 불쌍하게 여겨 재킷으로 가릴 수 있도록 도왔지만, 학교의 나머지 모두는 로비를 놀리면서 바보로 만들며 학창시절이 끝이 난다.

20년 뒤 켈빈은 화려한 과거와는 다르게 진급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무료하게 회계사 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켈빈에게 밥 스톤이라는 남자가 접근한다. 그는 바로 20년 전 고교동창 로비였고, 켈빈에게 친근감과 고마움을 표시한다. 근육질의 비밀요원으로 변한 그를 보고 놀리면서도 호기심이 생긴 켈빈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처럼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있는 두 남자가 만나며 여러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영화를 보면 전체적인 스토리와 결말은 뻔하게 보일 수 있지만, 케빈 하트와 드웨인 존슨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케미스트리를 통해 즐거운 웃음을 준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흘러가면서 우울함이 생기는 요즘, 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영화 <센트럴 인텔리전스>를 통해 많은 사람이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56기 기자생도 권정우

5부회 소개

생도문화개선위원회

생도문화개선위원회는 올바르게 행복한 생도 문화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생도문화개선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생도생활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의사항을 받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생도들의 건의사항이나 생도생활 발전안을 제안 받아 안건을 상징하고 행정예규를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문화와 예체능 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하는데, 최근에는 생도 VLOG 영상제작을 통해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전통을 지키며 올바른 외적 자세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캠페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3사의 전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대에 맞게 발맞춰나가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데, 대표적으로 스타강사 프로그램이 있다. 스타강사는 생도가 직접

선생님이 되어 다른 생도들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토익과 같은 어학 분야, 공학 계열의 일반 학 분야, 자격증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강사의 출입이 제한되어 어학이나 자격증에 대한 생도들의 학습여건이 제한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 가문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강생도와 교수생도 모두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성장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생도문화개선위원회의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끈기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위원회는 일반학기뿐만 아니라 군사학기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휘군무 직책보다 임기가 길다. 또한, 문화라는 것이 언어, 행동, 가치관, 공동체 생활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서 끝까지 생도들을 생각해야

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곧 새로운 지휘군무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21-1차에 임무를 잘 수행해줄 생도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생도문화개선위

원회는 앞으로도 더욱 열려있는 사고로 생도들을 위한 임무를 잘 수행해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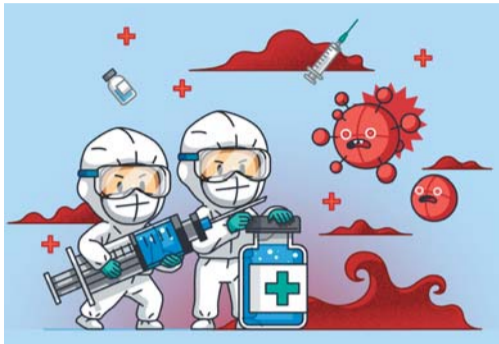
56기 기자생도 정아란
57기 기자생도 이용수



▲ 생도문화개선위원회 위원장 홍준표 생도(좌)와 부위원장정우석 생도(우)

사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전우를 돌아보며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자.



올해도 어김없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는 특히나 1월 말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인 창

궤로 지구촌 전체가 매우 힘겨운 한 해였다. 현재도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의 효과적인 국가 방역체계와 대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멈추지 않는 코로나 19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요즘, 추운 겨울나기가 힘겨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온정의 손길이 더욱 줄어들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매년 찬바람이 부는 연말이 되면 구세군의 자선모금과 자선 바자회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행사들이 이어지곤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여파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여느 때보다 세태가 각박해져 이러한 각종 행사조차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소녀·소녀 가장, 혼자 사는 어르신, 거리의 노숙인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은 더욱 필요하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더불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살아온 슬기로운 민족이다. 연말연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참여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활발한 나눔 문화의 확산이 더욱더 필요하고 절실해지는 시기다. 특히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더욱 지쳐 있는 올해 연말연시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부 기관, 기업, 학교 등 각종 단체와 개인의 더욱더 많은 아름다운 기부 행렬이 이어지길 바란다. 이를 통해 나눔, 배려, 사랑의 가치를 실천함은 물론,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결속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작은 사랑도 고맙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한 울타리 안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을 재차 상기하며 우리 충성대인 모두는 한 번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야 할 때다. 올해 연말연시는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찾아 조건 없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보도록 하자. 힘들고 지쳐 있는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활력소를 줄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충성대인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의 손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밀덕’ 있나요?

충성대 칼럼

소령 박동휘(군사교양학처 군사사학교수)



여러 이유를 들어 ‘밀덕(밀리터리 덕후)’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을 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며 글을 시작한다. ‘밀리터리 매니아’ 또는 ‘밀리터리 광’은 의미나 사용되는 빈도, 또는 전달력에 있어서 본 글의 취지와 미묘한 차이가 있기에 불가피하게 밀덕이라는 신조어를 선택했다.

“혹시 이 교반에 밀덕 있나요?” 내가 이곳 충성대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한 2010년 1학기부터 지금까지 매 강의의 첫 교시 모든 생도에게 하는 질문이다. 생도들은 그 질문의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익살스러운 웃음과 함께 한 명 또는 두 명 정도의 특정 동기의 이름을 거명하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곤 한다. 통상 지목당한 생도들은 당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필자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가요?”라는 이어진 질문과 함께 밀덕 생도들을 치켜세워주곤 한다. 필자에게는 전쟁사부터 무기(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밀덕이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갈 주역이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밀덕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선입견과 이해 부족이 그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움도 느끼고 있다.

일본에서 본래 ‘택(당신)’ 또는 ‘집’을 뜻하는 ‘오타쿠(お宅)’라는 단어는 1970년대를 지나며 그 의미가 확장되어 집 안에만 틀어박혀 취미 생활인 일본풍 애니메이션 등에 열광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가 되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가 더해지며 부정적인 단어가 되었다. ‘오덕후’는 위의 신조어가 1990년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우리식 발음으로 바뀐 것이며, 줄임말이 ‘덕후’다. 역시 초기에 일본의 애니메이션 또는 게임에 심취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요즘 덕후가 기존의 부정적 의미를 탈피하여 특정 분야에 몰두해 전문가, 또는 그 이상의 경지에 오른 열정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변화했다. 이에 발을 맞추어 덕후가 접미사 형태로 변해 특정 취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수식하는 단어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예로는 역사 덕후, 자동차 덕후, 컴퓨터 덕후 등이다. OO 덕후도 길어 역덕, 자덕, 컴덕과 같이 O덕으로 짧게 불리기도 한다.

덕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각 덕후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성덕’

이라 부르는 칭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별히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 계의 성덕들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들에게 컴퓨터를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컴덕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에 열정을 쏟았다. 그들은 글로벌 IT 기업을 세웠고, 그 주위에 모여들어 지금도 자신들의 일을 즐기며 전 세계를 더 편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2020년 9월 발표한 미국 내 주식 가치 상위 5개 기업은 모두 IT기업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알파벳(구글의 모기업) 순이었다. 이처럼 덕후가 과거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할 분야는 덕후계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밀덕’이다. 일반적으로 군과 관련된 분야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쟁사, 전술 및 전략, 무기체계, 무기 자체 또는 무기의 기술적 측면 탐닉, 밀리터리 프라모델과 피규어 만들기, 과거 전쟁 유물 또는 군장류 수집 등 매우 다양한 분야로 나뉜다. 더욱이 밀덕은 각자가 열광하는 분야에 대한 엄청난 깊이의 지식을 자랑한다.

그렇다면 컴덕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충성대의 사관생도들도 밀덕으로 대한민국 육군을 선도해 보는 것은 어떠할까? 사관생도들도 밀리터리 분야 중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취미로 삼고 계속해서 자신을 군사전문가로 변화시켜 나가 보는 것이다. 전쟁사 밀덕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교리와 전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무기 밀덕은 아전에서 우리 군이 보유한 무기를 최대치로 활용할 것이며, 장차 무기체계 구축의 비전 역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밀덕 양성을 위해 다음 학기에도 생도들에게 물을 것이다. “혹시 이 교반에 밀덕이 있나요?” 그리고 그들이 주위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취미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칭찬하고 자극할 것이다. 충성대의 생도들이 전쟁사 밀덕, 무기체계 밀덕, 전술 밀덕 등이 되어 우리 군의 미래가 되어 줄 그날을 모두 같이 꿈꾸어 보자.



젊은 그대들에게

시외 저명인사 칼럼

송 명순 장군(예비역 준장, 한국군 최초 여성 보병장군)



젊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다. 아무런 치장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나고, 무모한 도전도 특별한 조건 없이 허용되곤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사 허물이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젊음이란 것에 무척 관대한 편이다. 그러나 그 젊음은 애석하게도 얼마 못 가서 책임과 의무로 불리는 무거운 옷을 걸치고, 관대함을 바라는 기대는 어느 틈엔가 사치스러움으로 치부된 채 짧았던 젊음을 그리워한다.

계절은 또 어떠한가. 따뜻한 봄과 찬란했던 여름이 지나면 어느새 묵직한 가을이 깊어져 있고, 미처 체감하기도 전에 나이는 겨울이 불현듯 가까이 와 있다. 그 찬란함과 싱싱함은 언제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어쩌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를 다음 차례를 그저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다. 얼마 전 그대들처럼 한창 젊은 나이의 딸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을 때, 한낮의 태양 빛과 무심한 낙조를 보면서 젊음이 속절없이 지나갔음과 계절의 무상함을 유달리 특별하게 느꼈다. 나이 들은 어쩔 수 없나보다.

내게도 젊음은 분명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문에 들어섰을 때가 만 24세를 두어 달 남겨 두고 있었으니 지금으로부터 무려 39년 전의 일이다. 세상에 무서

울 것 없다는 젊은 날, 대학과 집이라는 안온한 울타리를 벗어나자마자 각박한 사회로 던져졌다. 나와 같은 58년생들은 6.25전쟁 후 많은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하기 시작했고 민주화운동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라는 말 그대로 급격히

늘어난 동년배들로 인하여, 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사회로 진입해야만 했던 젊음들이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자산이 무엇인가. 어떠한 경우에는 도전을 꺼리지 않는 소중

한 젊음, 바로 그 젊음이었다. 정말 우연히, 전혀 뜻밖의 기회로 군인이 되는 길을 알기 전 내게 군대는 미지의 세계였다. 심지어 군복을 입은 여성은 단 한 번 마주친 적조차 없었다. 다른 여러 분야의 직업군들이 눈에 띄기도 했었고 더러는 평범한 직업을 권유받기도 했지만, 그때 어떤 연유에서인지 '군인의 길'만이 보일 뿐이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하긴 젊지 않았다면 과연



그리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마는... 군인이 어찌면 나의 천직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함 하나로 후보생 시절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 군인이 되고자 노력했다.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젊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쉽게 절제되지 않는 욕심들은 모두 군복 안에 파묻고 억누르며, 여성으로서 남들은 쉽게 가지 않는 길이었지만 남들보다 좀 더 진중한 국가관과 조국애와 이타심을 견지하는 젊은 나날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그런 노력으로 군인은 어느새 내 삶의 전부가 되었고, 마침내 개인과 조직 모두에 영광이었던 '한국군 최초의 여성보병장군'이 될 수 있었다.

이쯤에서 젊은 그대들에게 꼭 전하고픈 얘기가 몇 있다. 첫 번째로는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 그대들이 참 군인이 되고자 지금의 길을 선택했다면, 생각

이 느슨해지고 고비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초심을 거듭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을 때 마지막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남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 늘 준비되어있는 사람은 다가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며 그럼으로써 원하는 목표에 더 쉽고 빠르게 다가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것! 오늘을 충실히 살지 않는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미래가 밝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 내일 지나간 오늘을

되돌아보며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작가 중 한 사람인 소포클레스가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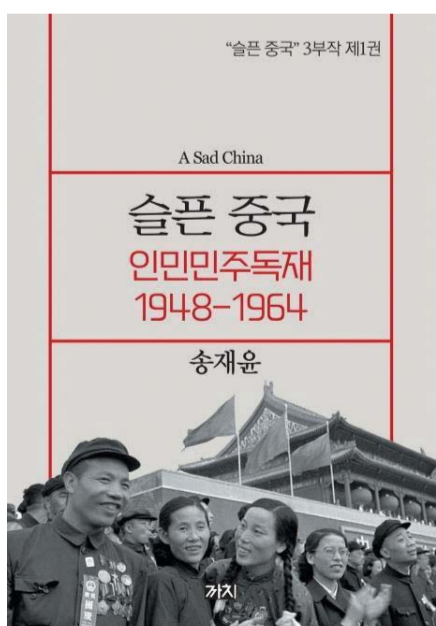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저 언덕 넘어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중략)... 사랑스런 젊은 그대, 태양 같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우리 동년배의 아이돌 가수가 부른, 당시 유행했던 노래 구절이다. 생도생활은 그야말로 거친 벌판을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닐 것이다.

결코 녹록하지 않으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제하며 오로지 하나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숭고한 생활일 것이다. 물론 힘들지만, 나는 이 군인이라 직업이 젊음을 오롯이 바칠 만큼 값어치 있는 직업이라는 사실을 32년간 겪은 나의 경험을 통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젊은 날의 청춘을 바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실하게 해내야 하는 생도생활일 것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큰 꿈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대신, 인생이라는 커다란 그림 중 한 부분을 모자이크하듯 하나씩 끼워 맞춰가며 한 발자국씩 나아간다면 군인의 삶이 어느덧 그대의 생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요즘 세대에 군인이 되겠다는 담대한 선택을 한 태양 같은 젊은 그대들이여, 가슴에는 큰 꿈을 조국에는 충성을 다하는 특별한 청춘들이길 마음으로 깊이 응원한다.

슬픈 중국: 인민민주독재 1948-1964

독서 서평

중령 황수 현(교수부국제관계학과 조교수)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마침내 중국은 G2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이후 중국의 성장은 무섭도록 질주하여 2019년 기준 GDP 통계에서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67%에 달하는 수준에도 달하게 되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하며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G2대국인 미국과 중국 모두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밀접한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냉엄하고 지정학적인 안보 현실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접근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의 현대사 민낯을 소개한 책이 한국인 교수에 의해 최근 출판되

었다.

미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취득 이후 2009년부터 캐나다 맥마스터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강의하고 있는 송재윤(宋在倫) 교수는 중국 현대사 3부작 중 제1부로 『슬픈 중국: 인민민주독재 1948-1964』를 출간했다. 이 책은 1948년 약 30여만 명의 피난민을 희생시킨 중국 동북부의 거점도시 창춘에서 발생한 홀로코스트에서 시작해 중국의 건국 비화와 6·25전쟁 참전 배경, 마오쩌둥 중심의 중앙권력 공고화 과정,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약 3,600만 명의 아사자를 촉발한 대약진운동의 참상을 생존자들의 당시 증언록을 포함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의 중국을 움직이는 중국 공산당을 태동시킨 마오쩌둥이 국가의 기반을 설립하며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고, 당내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오랜 혁명동지라 하더라도 마오쩌둥의 권력에 도전하는 위협세력을 반대세력으로 몰아 어떻게 가차 없이 제거해나갔는지 그 과정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당시 오랜 전란에 지친 중국인들은 공산당이 제시하는 유토피아적 사회를 기다리며 국가

정책에 묵묵히 순종했으나, 결과적으로 다수의 중국인은 공산당이 제시한 것과는 달리 곤궁하고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는 주요 국면마다 중국인들이 경험했던 처절한 현실의 목소리를 증언의 형태로 담담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향후 출간 예정인 2부에서 1964~1976년까지 중국을 대혼란에 빠뜨린 문화대혁명, 3부에서는 마오쩌둥 사후 1976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현실을 소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독자로서 기대되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송재윤 교수의 슬픈 중국 시리즈는 2016년, 홍콩대 석좌교수인 디콰터(Frank Dikötter) 교수가 발간한 인민 3부작과 그 궤를 같이하는 저작으로 중국 현대사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비교해가며 읽어보기를 권한다.

중국은 대한민국과 오랜 역사를 같이 교류하며, 공유한 국가로서 앞으로도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웃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는 G2 국가로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현대사를 바로 알고 오늘의 현실에 대응할 지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반도의 안보 현실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한번은 읽어볼 만한 저서이기에 감히 추천한다.

2011년 7월, 중국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0년 기준 국가별 GDP 순위에서 약 4,000억 달러 차이로 일본을 제치고

코로나 이후 교육의 방향

독자 투고

김병 주 교수(영남대학교 기획처장, 교육학과 교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COVID19)은 학교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작하기 전부터 혼란의 연속이었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주의(1.20)에서 경계(1.27)를 거쳐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범정부대책 회의에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심각 단계에서 교육부는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초·중·고와 대학은 개학을 단계적으로 연기하였고, 결국 적지 않은 대학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원격수업 등 재택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대학들의 원격수업은 혼란을 겪었다. 1학기에 시행된 원격교육은 다양한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환경이나 온라인 교육을 위한 준비가 지역이

나 학교, 학생 간에 달라 교육격차를 유발하기도 하였고, 수업에서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의 불평등도 적지 않았다. 교원들도 원격교육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소통과 협력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바라만 보고 시도해보지 못했던 온라인 교육을, 비록 외적인 여건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면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의 교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온라인 원격교육의 경험을 살려 학교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지난 1학기를 거치는 동안 학습격차는 벌어졌고 에듀테크의 한계도 드러났다. 열의와 집념을 가진 학생이 아니라면 아직은 에듀테크에만 의존해 학습하기는 매우 어려웠고 학습격차는 더 벌어졌다. 학습격차의 원인에는 학습 동기의 부족이나 기초학력의 미달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교사의 부재가 가장 크다. 수업시

간 중에 문제 행동의 지적이나 눈 맞춤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원격교육이 지속될 경우 자율학습이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과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학습 동기와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 등 온라인학습 약자에 대한 대책과 배려는 매우 중요하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학교와 교사가 주도적으로 첨단 에듀테크의 도움을 받아 교육 효과를 최대화하여 가는 스말로그(smart+analogue) 교육이다. 스말로그 교육이 시행하려면 교사가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 주고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학생들이 오전에는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동아리 활동 혹은 지역 사회의 기관에서 프로젝트와 체험 활동을 하면서 삶과 직업 세계를 배워가도록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스말로그 교육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뉴노멀이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첨단 에듀테크 활용에 필요한 기기와 교육 인

프라가 갖춰지고, 교사와 학생의 스마트 교육 마인드와 역량도 향상되고 있다. 이제 이들을 제대로 활용한 교육방안이 마련될 때이다.

대학도 코로나19 이후 학사운영의 주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은 교수법과 학사운영 방식 등에 있어서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을 포함한 수업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며, 특히 원격수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들은 그동안 원격 수업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통한 전면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다 보니 적지 않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대학들은 비대면 학습(원격교육)의 확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교수법과 학사제도에 대한 고민, 다학제와 집중이수제 등의 적극 활용, 비대면 강의의 질 관리 방안 마련, 변화하는 수업 운영에 대한 학칙개정과 교수업적 평가, 성적 산출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등 소규모 강좌 및 비대면 학습 진행이 어려운 과목 등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점 및 성적 부여 등 향후 학사운영 계획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코로나19라는 외부요인에 변화된 대학교육을 이제는 자발적으로 혁신해야 할 때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독자 투고

이영 찬 교수(영남대학교 행정학박사, 군사학과 교수)



행복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부자, 권력, 명예, 건강 등이라 주장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낚시, 운동 등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대답하는 등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행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뜻한다. 즉, 행복은 만족과 기쁨, 이 2가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고, 가난하더라도 만족하면 행복할 수가 있다. 어느 부자가 많은 재산이 남았음에도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여 자살했다면 그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산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조그마한 땅을 일구면서 살아감에도 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다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욕심을 줄이거나 조그마한 것에도 만족해야만 해결될 수 있으나 실상 이것을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남과 비교하며 자신이 뒤처지

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행복에 대한 명강의로 유명한 미국의 사하르 교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행복을 창출한다고 보고, 긍정적인 삶을 위한 5가지 관점으로 작은 변화, 신념, 사물 중시, 감사, 유머를 언급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한 5가지 지침으로는 목표설정, 자존감의 향상, 스트레스의 해소, 완벽주의의 극복, 친밀한 인간관계의 유지를 주장했다.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행복하려면 불행의 원인을 알고 이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불행의 원인으로 첫째, 이를 수 없는 것을 원할 때,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셋째, 쾌락을 탐할 때 불행해진다고 주장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길 원하고 행복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 행복이란 것은 그 무엇보다 주관적이다. 그러하기에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당사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반응하느냐에 따라 행복에 대한 기준은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되돌아보자. 현재의 '나'는 행복을 추구할 때 정신적인 본질보다 쾌락의 현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를. 필자는 학자들이 제시한 주장과 연구 결과를 기초로 행복의 기준으로 5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둘째,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며, 셋째,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넷째, 매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다섯째, 성실하게 살라는 것이다. 이 5가지 행복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부분 자신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나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하기에 비교하는 순간 초라해지며 심적으로 우울해져 좋지 않은 상황에 빠져들기도 한다. 둘째, 절제는 '정도에 넘지 않도록 하여 알맞게 조절'하는 것으로 과식을 하면 체하고, 씹씹이가 크면 빛더미에 오르고, 말이 많으면 설화를 입는 것처럼 욕구를 자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삶'을 제시해 보았다. 셋째,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관점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꾸어 에너지와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경제적 성공까지도 이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긍정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신의 삶도 풍성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자. 넷째, 감사는 기쁨을 부르고, 기쁨은 행복을 부르기에 감사는 행복을 부르는 마법

의 주문임을 명심하자. 감사의 수준은 '조건부(If), 때문에(because), 불구하고(in spite of)'의 3단계가 있다. 이 중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감사는 '조건부', '때문에'가 아닌, 여건과 상황이 좋지 않은 '불구하고'의 감사이다. 이것을 추구할 때만이 다소 부족함에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만드는 데에 자양분이 되고, 그러한 이는 타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게 됨으로써 결국, 신뢰와 사랑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행복은 물질적이기 보다는 평화로운 마음이다. 그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또한, 너무 많거나 큰 것을 바라면 만족를 못해 그것을 누릴 수 없다. 그것은 너무 멀리 가 아닌 가까운 데서 찾아야 하고 시점도 미래가 아닌 현재에서 발견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주목하여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행복은 자신이 느끼기 나름인데 때 순간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이는 행복하고 어떤 이는 불행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 하는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동안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견지한다면 행복은 반드시 자신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유엔참전국가기념비 탐사기 5화
인천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

“카리브 바다의 정기를 타고난 콜롬비아의 용사들! 국제연합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남미 유일의 참전국 콜롬비아의 흔적을 찾아서 인천 경명공원으로 향했다. 파란 하늘 아래 우뚝 솟은 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를 바라보며, 16개국의 참전국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참전한 콜롬비아대대의 활약을 떠올려 보았다.



▲ 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

2차세계대전 직후 콜롬비아는 정치적 갈등으로 국가기관이 붕괴되고 사회적 불안이 커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발발 소식과 유엔 결의를 접한 콜롬비아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의 지원을 받아 6·25 전쟁 참전을 결정했다. 우선 먼저 해군 함정 파견을 결정하고, 1950년 11월 1일 190명의 승무원과 함께 프리깃함 1척을 한국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지상군 파병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콜롬비아 육군파병은 무장·훈련·보급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연되다가 1950년 11월 14일 파견을 선언하고, 모집 및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부산항에 도착한 것은 전쟁 발발 1년 후인 1951년 6월 15일이었다. 콜롬비아대대는 동래의 유엔군수용대로 이동하여 6주간에 걸친 현지

적응 및 전술훈련을 실시하였고, 8월 6일 흑운도령 전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했다.

콜롬비아 지상군의 주요전투 중 가장 뛰어난 전적 중 하나는 바로 김화 400고지 전투이다. 당시 콜롬비아대대는 미주리선 방어와 전초진지인 325고지, 400고지, 454고지 일대에 대한 정찰 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공군이 점령하고 있던 김화 400고지는 견고한 방어시설이 구축된 강력한 방어거점 중 하나로 정찰대가 출동하면 총격이 가해져 아군의 피해가 날로 늘어만 갔다. 결국, 콜롬비아대대는 6월 21일 적의 전진 진지인 400고지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 콜롬비아군의 참전 당시 모습 전시

3소대장 베르날(Mario Bemal) 소위는 적 진지 가까이 다가가 벙커를 향해 수류탄과 자동화기 사격을 집중하여 공격했고, 기습공격에 허를 찔린 중공군은 뒤늦게 후퇴를 시도했다. 콜롬비아대대는 기선을 제압하자 바로 중공군의 벙커를 모조리 폭파하고, 이곳에 콜롬비아 국기를 게양하였다. 콜롬비아군은 이 기습공격에

서 중공군 벙커 11개를 모두 파괴하는 한편, 적 28명을 사살하고, 2명을 포로로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아군 2명이 전사하고 15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는 콜롬비아대대가 김화 부근 미주리 선상에서 실시한 가장 성공적인 전투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승리는 길게 가지 못했다. 콜롬비아대대의 지휘관이 새로 부임한 이후 다시 정찰에 나선 그들은 중공군의 기습 매복작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장교 2명과 병사 94명이 전사하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콜롬비아대대는 우선 와수리 방향으로 철수하는 한편, 교육 훈련에 주력하면서 차기 작전에 대비하였다.

콜롬비아군은 총 4회에 걸친 교대병력을 모두 합쳐 연인원 5,100명의 병력을 한국에 파견했다. 콜롬비아군은 6·25전쟁 중 여러 전투 및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13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44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8명이 포로가 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끝까지 용맹함을 잃지 않고 싸운 그들의 전적에 대해 미국 대통령 부대 표창을 비롯하여 총 54건의 각종 표창이 수여되었고, 대한민국 을지무공훈장과 콜롬비아 무공훈장 등 462건의 훈장도 수여되었다.

콜롬비아의 한국 파견은 콜롬비아군의 현대화 과정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6·25전쟁 중 겪은 실전 경험은 콜롬비아군의 전략 강화 및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

다고 알려져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머나먼 타국을 위해 달려와 준 콜롬비아군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는데, 그 시간이 그들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니 매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우리



▲ 콜롬비아대대의 부대표지판

나라는 지난 1973년 그들의 파병에 감사함을 담아 석가탑과 정림사지 석탑을 세워놓은 듯한 높이 12m의 6층 석탑을 콜롬비아에 선물하였다. 또한, 보고타에는 지난 2017년 6·25전쟁 참전용사우호회관이 건립되었다. 70여 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참전에 대한 감사함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이 들었다.

참고자료

『6·25전쟁과 유엔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5)



※ 국방정신전력원 블로그에서 더욱 다양한 정신전력 교육용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jungsin3560>
글/사진: 허호영(국방정신전력원 전문연구원)

우리 고장바로 알기(영천) -2

영천 지역의 역사 및 전통문화



이원석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영천 지역의 역사
'호국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천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골벌국(骨伐國)의 아음부왕이 신라 조분왕에게 나라를 바친 이후 삼국시대 김유신 장군의 설화가 남아있는 골화성과 중앙석굴을 비롯해 고려의 건국을 도운 황보능장 장군, 임진왜란 때 최초로 빼앗긴 성을 되찾은 영천복성전투, 구한말 의병인 산남의진, 6.25 한국전쟁에서 국운을 바로잡은 영천전투 등등. 이러한 바탕위에 1968년 창설되어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50% 이상을 배출한 육군3사관학교가 자리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영천에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입교면 양항리의 고인돌을 비롯해 도천리의 패총, 지양댐 수몰 지구의 고분古墳, 대의리 고분, 조곡리의 지석묘, 청봉면 보성리 암각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도굴해간 어은리의 청동 유적 등 많은 유적이 있다. 또, 북안면 신리리 뒷산에 당시 원시인들이 까먹고 버린 것이라고 인정되는 조개무지가 있는데 넓이 2m 정도의 청석바위에 응결된 조개껍질은 꼭 화석처럼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유적들을 감안할 때 우리 조상

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곳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17세에 중앙석굴에서 난승대사를 만나 무예를 닦은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의 일념으로 미리 적진을 정탐하기 위해 같은 화랑인 백석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이들은 골화관(영천)에 다다라 유숙하려 하는데 갑자기 내림·할례·골화의 세 호국여신이 나타나 같이 동행하는 백석은 고구려국의 첩자이므로 동행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훌훌히 떠나버렸다. 이를 이상히 생각한 김유신은 골화관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백석을 고문하니 틀림없이 첩자이므로 이를 처단하고 내내 삼신(호국여신)에 제사 지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나말의 충신인 향토출신 황보능장이 쇠퇴해가는 국운을 지키고자 금강산성을 축조했다. 후백제 견훤의 군사가 금강산성을 쳐들어왔을 때 용진분투한 결과 기어코 성은 사수해 냈으나 아깝게도 황보장군은 장렬한 최후를 마쳤고 지금도 고경면 창하리 육군3사관학교 영내에 전금강성장군 황보능장묘가 있으며 장군이 쌓은 토성도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영천 지역의 전통문화

영천 지역의 민간신앙 및 무속으로는 동제, 인택, 조왕제, 고사, 구병제(驅病祭), 제역제(際厄祭), 연등제(燃燈祭), 산신제(山神祭),

진혼제(鎭魂祭), 용신제(龍神祭), 삼신<산신(産神)>, 점복(占卜) 등이 남아있다. 관혼상제례(冠婚喪祭禮)와 다양한 전승놀이가 전해 오고 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이웃동네와 돌을 던져서 밀려 도망가는 동네가 패하게 되는 석전(石戰)을 비롯해 윗놀이, 연날리기,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 농악, 바둑, 장기, 쌍륙(雙六, 雙陸), 투전, 골패, 제기차기, 고누, 땅뺨기, 말타기, 돌반기, 꼭두각시, 등 빼앗기, 길 막기, 서리 등을 즐겼다. 줄당기기에 이어서 벌어지는 대동놀이인 영천 굿나무 싸움은 고을의 읍치였던 영천읍과 그 주변 지역에서 정월 대보름 명절에 벌어진 영천 특유의 놀이다.

영천 사람들은 줄당기기의 승부보다는 굿나무 싸움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줄당기기의 승부가 결정되면 미리 줄머리에 자리하고 있던 양편의 용맹한 싸움꾼들이 암줄과 숫줄을 결합하는 데 사용한 굿나무를 쟁취하기 위해서 격돌하며 어느 한 쪽이 굿나무를 차지해 정해진 기간동안 지켜내면 이기는 초복을 위한 축제 놀이다.

영천지방 민요로는 만주를 거쳐 근래 북한에서 발굴된 '영천아리랑'이 고향으로 돌아와 일제강점기 시절 영천인들의 애환을 보여준다. 일제의 혹독한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향수에 젖어 고향 영천에서 부르던 노래를 되살려 마음으로 불렀던 '영천 아리랑'은 이역만리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혹은 살아남기 위해 버

려진 들판을 개척하던 한 많은 민족의 설움을 담은 노래로 동포들의 가슴에 새겨진 아픈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천지방에서는 매년 음력정월 보름에 당굿을 할 때 풍물을 잡했으며, 당굿이 끝난 뒤에 마을을 돌면서 지신밟기를 했다. 바로 이 당굿에서 유래한 놀이와 가락이 전승·보존된 것이 명주농악이며 특이한 놀이마당으로 구성되고 있다. 북안면 명주리 주민들에게 전승되어 온 농악은 1994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춘천 종합 운동장에서 열린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해서 농악부문 최우수상인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후 시민체전 등에서 몇 차례 시연을 했으나 주민들의 노령화와 이주에 따른 이탈로 제대로 활동이 전개되지 못했다. 2010년 10월 1일 명주리 주민들이 영천 문화원 풍물단에 명주농악에 대한 권리 일체를 전수했고, 영천 문화원 명주농악풍물단은 2010년 경상북도 풍물대축제에서 차상을 이듬해인 2011년에 장원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농시를 지으면서 고된 육체적 노동을 위안하고 협동심을 진작시켜 능력을 얻고자 하는 농요가 있다. 농요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가락이 비슷하지만, 지방에 따라 가사가 다르고 향유자의 서정이 다르다. 영천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농요로는 모심기 노래와 지신밟기 노래, 메밀가, 논매기 노래 등이 있다.

겨울철 동상을 예방하자!

건강상식

국군의무학교 응급간호교관 대위 최순희



겨울철 훈련 때마다 우리를 가장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추운 환경에 노출된 나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간지럽고 점점 감각이 없어지는 것. 바로 동상이다. 동상은 참호족염, 참호발, 참호복 등 다양한 말로 불리는데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땅을 파서 만든 도랑)가 생겨나면서 오랜 시간 부동자세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추위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가 겹쳐 손끝이나 발끝이 얼어 통증이나 가려운 증상이 생긴 것에서 유래되었다. 그렇다면 동상과 비슷한 동창은 무엇일까? 동창은 동상보다 가벼운 증상으로 피부의 하부조직은 얼지 않고 피부만 얼어있는 상태다. 손발이나 얼굴에 주로 발생하며 가려운 느낌이 나지만 대부분 가벼운 증상이고 따뜻한 환경으로 이동하면 금방 호전된다. 동상(frostbite)은 표면이 얼 정도로 극히 추운 환경(영하 2°C~10°C)에서 7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노출 시 피부나 피부 하부 조직이 혈류 없이 얼어버린 상태이다. 단순히 노출 시간 만이 아니라 바람이나 젖은 의복의 착용, 차가운 금속의 접촉 여부에 따라 진행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동상은 4단계로 구분한다. 1도는 홍반성 동상으로 부종과 따가움, 가려움을 호소하는 단계이다. 2도는 수포성 동상으로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가 벗겨지는 단계이다. 3도는 괴사성 동상으로 피부조직의 전 층이

얼어서 궤양이 나타나고 괴사되는 단계이다. 4도는 근육이나 뼈까지 침범된 상태로 감각 이상이나 경직이 발생하는데, 이 단계의 위험한 점은 해당 부위에 궤양, 괴사, 괴저를 동반하게 되며 영구적인 조직손상으로 해당 부위를 절단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동상에 잘 걸리는 신체 부위는 손과 발끝, 귀와 코끝, 볼 등이 있으며,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동상은 1도 동상이다. 해당 부위에 가려움, 저린감, 따끔거리는 증상과 함께 피부색이 회백색으로 변해있다면 동상을 의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동상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한복, 장갑, 양말, 신발을 잘 착용하는 것이다. 젖은 의복이나 신발, 몸에 딱 맞는 의복은 피해야 한다. 행군 시 땀에 젖은 양말은 자주 갈아 신어주고, 손발은 계속 움직이거나 마사지를 하는 것도 동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끝이 가렵거나 색이 변하는 등 동상 초기 증상이 있다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상에 걸린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이동시킨 뒤 동상부위를 압박하고 있는 옷, 양말, 신발 등을 제거하여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녹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42°C~44°C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30분 동안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약간 붉어질 때까지 담그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40분

이상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온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30분 이내로 급속가온이 더 좋다고 한다.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동안 물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물 온도를 측정하며 새로운 물로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온 시 환자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한다면 특정한 금기사항이 없는 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괜찮다. 가온을 마친 후에는 피부를 깨끗하고 건조한 천으로 감싸 보온해준다. 또한, 치료 이후의 환자는 동상 입은 부위를 보호하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회복 기간에는 술이나 담배를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최근 동상 연고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연고의 종류로는 적용 부위의 혈액순환을 도와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하여 말초 부위 혈액순환을 증진하는 혈액 순환제, 동상 부위의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피부 발적제, 자극을 완화하고 항염·진통작용을 하는 자극성 피부염 치료제, 보습제나 생약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 등이 있다. 동상 연고는 개인이 입의 사용 시 동상 부위에 발적, 발열, 가려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동상 발생 시 금기 행동은 동상부위를 얼음이나 손으로 마찰시키며 마사지를 하는 것이다. 동상 발생 전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증진하여 동상을 예방하지만, 동상 증상이 나타난 이후 마사지는 피부에 상처를 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동상은 겨울철 군인들이 많이 경험하는 증상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철저한 예방이나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 최소한의 예방적 행동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항상 동상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동상 발생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영구적인 손상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독자투고

명문가(名門家)를 찾아서

㉓ 전금강성 장군 황보능장묘 (傳金剛城將軍皇甫能長墓)

학교 신문과 내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게 중위 때부터니, 햇수로 는 근 20년이다. 어떨 때는 주간, 부주간, 신문사 지도교수로 직접적인 간여를 하기도 했고, 몇 번의 휴식기도 있긴 했지만, 항상 마음만은 옆에 있었다. 이번에는 필자 공적인 업무로 인해 신문사를 떠나야 할 상황이 왔고, '명문가를 찾아서'도 잠시 쉬어야 할 것 같다.

마지막 '명문가를 찾아서'는 지난번에 방문했던 윗골 최씨 가문의 최진돈 선생님이 추천해준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년~1492년) 가문을 계획하였으나 괴질(코로나 19)로 인해 무산되었다. 그래서 우리 충성대인과 항상 같이 있지만, 지금까지 소개하지 못했던 전금강성 장군 황보능장묘(傳金剛城將軍皇甫能長墓)를 소개하고자 한다.

황보장군묘는 충성대인이면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이는 학교본부와 중약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황보장군묘의 주인은 '황보능장(皇甫能長)'으로 영천 황보씨의 시조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성인 황보씨는 신라말 중국에서 온 성이고, 당나라에서 귀화한 황보경(皇甫鏡)이 우리나라 황보씨의 시원을 이루고,



▲ 황보능장묘

황보능장은 황보경의 증손이라고 한다. 황보능장은 신라말부터 고려 초기까지 왜적과 후백제를 방위하기 위해서 영천 지역에 금강성(金剛城)을 축조하였고 스스로 금강성 장군으로 칭하였다. 고려 태조 때 이에 대한 공으로 영천지역을 다스

리도록 영천부원군(永川府院君)으로 봉해졌다. 황보씨는 고려 개국공신 집안으로 인정되어 고려 시대에 많은 인물을 배출했고, 특히 조선대에 이르러서는 복성 집안으로는 처음으로 영의정(領議政)을 배출하는 등 명문가로서의 위상을 이어갔다. 그 인물이 바로 세종 당시 김종서와 함께 6진을 개척하고, 계유정난(癸酉靖難) 시 어린 단종을 보필한 황보인(皇甫仁) 선생이다.



▲ 황보능장묘 비석

장군의 묘는 지름 16m, 높이 5m의 원형 분이다. 묘에 진입하자마자 오른쪽에 신도비와 양옆에 무인석이 있다. 학교에서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위치하였으며, 옆쪽으로는 솔밭길이 운치 있게 나 있는데, 황보능장묘가 좋은 곳에 위치한 것

이 아니라 학교가 황보장군묘와 같은 길지(吉地)에 위치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황보 장군과 관련된 설화로는 황보 장군이 하늘로부터 얻은 용마(龍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황보 장군이 자신이 얻은 용마의 용력(勇力)을 자랑하고 자 솔밭에 화살의 속도와 말의 주력(走力)을 경쟁시키는데, 결국은 오토로 인하여 아끼는 용마를 스스로 죽이고 만다. 이 설화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 영천지역이 김유신 장군의 활동지와 겹쳐 있고, 황보씨가 가지고 있는 귀화성으로서의 특수성 등이 가미되어 만들어진 설화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그 교훈은 과욕(過慾)과 성급에 대한 경계이다. 말이 죽어 만든 말 무덤의 위치에 대한 설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도 재미있다.

그동안 '명문가를 찾아서' 원고를 기재하며 나에게 있어서는 부담이기도 했지만 큰 기회이기도 했다. 조금의 휴식기를 가진 후 다시 연재할 기회가 온다면 '명문가를 찾아서'는 다시 시작될 것이며, 연재될 것이다.

중령 최재호

특별한 노력, 특별한 의미



동문(同門)의 소리

우 보환(예 중령, 3사 17기, 대한노인회 본부장)

잊지 못할 충성대! 하루를 살아도 오직 충성대 정신으로 맹세하며 살아가는 선후배 동문님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먼저 드린다. 충성대 정신이 있기에 남다르게 살 수 있고, 남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충성대 입교 시절부터 좌우명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노력은 평범한 결과를 얻고, 특별한 노력은 특별한 결과를 얻는다"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다. 지금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 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 지원본부 본부장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800만 노인 시대의 노인 권익과 노인복지, 그리고 노인자원봉사의 실현을 위한 부서장으로서 보람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필자는 현역시절 주경야

독으로 석사과정까지 마치면서 앞으로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는 노인 분야이고, 노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면 노인복지와 상담 쪽에 관심을 경주할 필요성을 느껴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런 노력은 훗날 보상을 받게 되는데, 전역 후 우연히 대한노인회 본부장 공채시험 요강을 보고 응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요강에 반드시 본부장공채 자격 필수 요건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했다. 바로 이것이었다. 평소 애써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호박이 굴러들어와도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또 다른 현역시절 이야기이다. 국군의 날 훈·포장 공심이 있었다. 지금은 모르

지만, 이전 행정병과는 훈·포장 공심에 제외되기 일쑤였다. 그 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공심을 최종 보고 받은 지휘관께서는 웬지 공심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올해 훈장 수상 대상자는 우보환 중령 하나뿐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 훈·포장 수상자는 누가 보더라도 공감을 해야 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필자의 업무 능력 실적을 높게 평가하여 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세월은 흘러가기만 하지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 언제 어디서 감사한 일이 들어올지 모르는 일이다. 기회도 단 한 번뿐이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범한 삶은 누구나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삶은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주어진 직분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꽃이 피고 탐스러운 열매가 열릴 것이다.

80년도에 보병 장교로 임관해서 중위 시절에 정훈장교가 되어 시인이 되고 병

영 시인이 되고 어느덧 중견 시인이 되었다. 현역시절 계룡대신문 편집장과 육군지 편집장을 역임하였고, 계룡시 초대 문화예술총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했던 것, 그리고 현재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겪은 모든 것이 충성대 모교를 위한 거름이 되고자 특별히 노력하며 살아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순간도 필자는 민태원 선생님의 수필 "청춘예찬"을 음미하면서 청춘처럼 살아가려고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이처럼 매 순간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마음과 몸이 모두 지쳐있는 상태이다.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어 삶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기 힘들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과 이웃과 충성대와 조국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통해 특별한 결과를 얻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평범한 노력은 평범한 결과를 얻고, 특별한 노력은 특별한 결과를 얻는다. 한 번쯤 되새겨 볼 의미 있는 말이라 생각한다.

제50주기 故 차성도 중위 추모제

“살신성인 정신을 보여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살신성인의 표상, 故 차성도 중위의 제50주기 추모제가 지난 10월 31일 울산대공원 현충탑에서 진행됐다. 울산광역시 후원하고 육군3사관학교 울산동문회가 주관한 이날 추모제에는 한동주(14기) 총동문회장과 김운태(1기) 동기회장 및 동기생, 생도대장(준장 김호복), 행정부장과 김기현 국회의원, 김상출 울산보훈처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했다.

한동주 총동문회장은 “차성도 중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며, “추모식을 통해 차성도 중위의 나라사랑과 애국심을 계승하여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故 차성도 중위(1기)는 1970년 1월 17일 육군소위로 임관해 육군27사단 소대장으로서 부임했다. 그해 5월 13일 소대 야간방어 사격 훈련 중 한 병사가 수류탄 투척을 위해 안전핀을 뽑다 실수로 놓치자 몸으로 수류탄을 덮어 부하들을 구한 뒤 순직했다. 3사총동문회



군 간부 산업체 적응을 위한 실무교육 시행



▲ 교육을 수료한 인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재)서울현대교육재단에서 2020년도 군 간부 산업체 적응을 위한 실무교육을 시행했다. 김남경 재단 이사장 및 3사 총동문회 사무총장, 육본취업센터 실무담당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입소식이 진

행되었으며, 참석자 10명은 4박 5일간 취업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컨설팅을 받았다. 특히, 이번 교육은 육군본부 취업센터와 3사 총동문회,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여 교육비(90% 국비, 10% 개인)로 진행하였으며, 향후 범위를 넓혀 지방 거주자에게도 기숙사를 배정하여 실무교육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첫 참석 인원들(10명)은 4박 5일에 걸쳐 실시한 취업에 필요한 컨설팅과 실무교육을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취업(인턴 포함) 및 창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3사총동문회

최춘식 국회의원(15기)과 정책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 제1차 정례 세미나에 참석한 인원들이 행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27일 총 2회에 걸쳐 육군회관에서 최춘식 국회의원(15기, 경기 포천·가평)이 3사 총동문회 동문들과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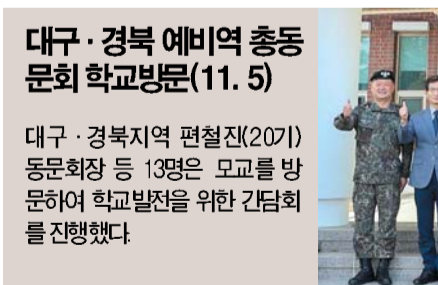
책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 및 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로 참석 동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11월 12일 총동문회관에서 '희망과 행복 포럼'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싱크탱크(Think tank)를 15기 동기회 차원에서 주축으로 결성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전 동문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3사총동문회

총동문회 및 동기회 학교방문 행사



3사 27기 30주년 기념행사 (10. 27)

27기 동기회장 박유신 등 임원진 17명은 임관 30주년을 기념하여 모교를 방문했다. 간담회를 가진 뒤, 학교에 충성관 LED 전광판을 증여하여 모교 사랑을 실천했다.



대구·경북 예비역 총동문회 학교방문(11. 5)

대구·경북지역 편철진(20기) 동문회장 등 13명은 모교를 방문하여 학교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1기 동기회장 김운태 등 임원진들은 임관 50주년을 기념하여 모교를 방문했다. 이후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모교 발전 기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하여 모교 사랑을 실천했다.



1기 동기회장 김운태 등 임원진들은 임관 50주년을 기념하여 모교를 방문했다. 이후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모교 발전 기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하여 모교 사랑을 실천했다.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20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0. 10. 21 ~ 12. 22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80억 6백만원(2020.12.22 기준)

■ 단체/우인

1기(총성회) 500(500), 15기 14중대 22(22), 20-1차 생도여단 본부 100(100)

■ 3사관학교 발전과 함께하는 군간부

정한기(육사#39 32118), 이희범(육사#41) 2394, 최원규(육사#44 219), 여운태(육사#45 100(100)), 김호길(육사#48 245), 김태욱(육사#51) 1(23), 두석주(육사#51) 2154, 이우진(육사#54 255), 박기홍(육사#55 2116), 조상근(육사#56 1(12)), 변용성(육사#58 295), 손창호(육사#58 25(84)), 이규현(육사#58 2(89)), 이주실(육사#58 2(74)), 김대영(육사#59 2(162)), 김진찬(육사#61) 2(59), 홍희종(육사#61) 2(91), 이한우(육사#63 219), 오민경(육사#65 2(34)), 오범진(육사#65 2(13)), 홍인재(육사#65 2(24)), 문준호(육사#67 3(37)), 이찬우(육사#68 2(34)), 권성진(육사#69 2(22)), 한덕수(학군#28 2(101)), 남기웅(학군#29 2(6)), 고성진(학군#31) 1(29), 구희곤(학군#32) 2(98), 서필석(학군#34) 2(6), 이두진(학군#35) 2(12), 박홍렬(학군#37) 2(24), 송경재(학군#37) 2(118), 김재윤(학군#44 2(49)), 김광운(학군#44 2(44)), 이종민(학군#44 2(17)), 김나람(학군#46 2(25)), 정우람(학군#46 2(12)), 김태룡(학군#48 2(36)), 이세훈(학군#48 2(17)), 홍현신(학군#48 2(15)), 김민범(학군#49) 2(18), 나상철(학군#49) 2(9), 윤정훈(학군#50 2(21)), 이선호(학군#51) 2(4), 최재호(학사#29 2(118)), 최용식(학사#33 2(20)), 이준수(학사#35 2(102)), 김기호(학사#37) 2(2), 에한석(학사#37) 2(20), 윤경주(학사#46) 2(8), 임도현(학사#54) 2(97), 구주현(학사#55 2(20)), 박수영(학사#56 2(12)), 성현애(학사#56 2(40)), 강진선(학사#57) 2(6), 전어울(학사#58) 2(48), 심정현(학사#58) 2(28), 김소현(여군#46 2(13)), 이희정(여군#49 2(31)), 김형태(간부#22 2(48)), 강찬영(군중#61) 2(24), 최윤정(간사#38 2(33)), 송수연(간사#53 2(14))

▶ **부사관** : 이대희(준위) 2(23), 진정철(상사) 2(67), 이명관(하사) 2(5)

▶ **군무원** : 김인수(군무원 2(30)), 류재운(군무원 2(186)), 안영주(군무원 2(36)), 양성우(군무원 2(58)), 유정호(군무원 2(11)), 정혜련(군무원 2(15))

■ 졸업·재학생도 부모 ('20.10.21 ~ 12.22 기부명단)

▶ 졸업생 부모(졸업기수관계)

윤종택(#38 윤호영 부) 10(390), 김종순(#45 김성수 부) 4(40), 조경해(#45 황정태 모) 5(765), 김시태(#48 김영수 부) 30(30), 성동모(#50 성영환 부) 4(188), 안순봉(#51 박상응 모) 20(310), 윤우상(#51 윤형민 부) 2(82), 김현미(#52 오치원 모) 2(40), 이영미(#52 황성규 모) 6(271), 정정화(#52 조강현 모) 1(333), 박일심(#53 정필승 모) 4(110), 유명일(#53 유준언 부) 20(20), 이영빈(#53 오경철 모) 1(38), 조정숙(#53 유영빈 모) 4(108), 윤명남(#54 이지호 모) 10(225), 이현규(#54 송형섭 모) 10(10), 조두현(#54 조해민 부) 10(70), 홍성은(#54 홍동민 부) 2(228), 서완수(#55 서지찬 부) 6(66), 유현규(#55 유경운 부) 2(124), 정원섭(#55 정준영 부) 1(12)

▶ 재학생 학부모(입금자성명)

(4학년) 김왕기, 김종기, 고경옥, 맹현주, 송학빈, 정희숙
 (3학년) 강석곤, 강혜영, 김경남, 김근택, 김수연, 김순말, 도연정, 박경석, 박동현, 배경자, 심영선, 양내석, 오유미, 이윤주, 이학남, 임승찬, 정재현, 지마리아, 한성희
 ※ 개인 기부현황은 발전기금 홈페이지(www.kaayf.or.kr) 내기부내역에서 확인 가능.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 ('20.10.21 ~ 12.22 기부명단)

- ▶ 1기 김용하 4(134), 남훈조 28(1,240), 임관택 2(72), 전수천 2(89), 최익환 2(74)
- ▶ 2기 김영일 50(554) ▶ 3기 장영집 5(240)
- ▶ 9기 권영호 10(375), 김현기 4(1,155), 윤지환 6(120), 최병학 10(1,190)
- ▶ 13기 문성목 20(150)
- ▶ 14기 김종환 2(48), 안호 10(1,740), 이용진 10(210), 이순진 20(710), 하병욱 2(382) ▶ 15기 김성언 2(517)
- ▶ 16기 원홍규 10(280), 이종우 2(151), 황병태 3(300) ▶ 17기 박종진 10(186)
- ▶ 18기 구연덕 2(120), 금용백 6(546), 진기상 30(1,050)
- ▶ 19기 이경희 2(164), 이종형 2(229), 이창호 6(552), 홍성식 1(186)
- ▶ 20기 김윤희 2(58), 박권순 1(139), 서정열 4(465)
- ▶ 21기 신철수 2(1,020), 장달수 2(99), 장활석 100(100)
- ▶ 22기 권순태 2(44), 김면수 10(25), 변상덕 30(30), 이진성 2(252), 정경호 2(36), 조태환 10(134)
- ▶ 23기 김영덕 25(1,031), 김창수 4(224), 김태일 2(221), 배요식 2(234), 손민호 2(17), 신영찬 2(64), 오승욱 4(246), 정철재 4(120), 허강수 2(263)
- ▶ 24기 박종만 4(36), 권금락 4(288), 권오봉 2(205), 김도형 2(224), 김지영 10(678), 남용구 9(263), 모경원 2(219), 박세철 2(63), 방성대 2(73), 안연준 2(86), 이문휘 2(87), 정정현 2(183)
- ▶ 25기 김남용 2(128), 문봉성 2(144), 손영기 4(130), 이은전 5(40), 이종현 2(43), 장광선 6(354), 장무수 2(41), 전희준 3(297), 조재희 2(115), 홍은표 1(191)
- ▶ 26기 고창준 12(210), 신충인 4(181), 양성안 1(4), 유재규 2(82), 유근환 2(28), 이덕우 2(118), 이도한 2(28), 이완주 4(115), 이인갑 2(28), 이재덕 2(28), 이태인 4(46), 이희순 2(231), 임우영 2(236), 장웅빈 4(114), 전용범 2(28), 정일희 2(28), 표기범 2(28), 허용도 2(38)
- ▶ 27기 김덕중 2(60), 김성오 4(14), 김용범 4(4), 김지덕 2(14),

- 김호복 8(225), 석수열 2(37), 안병욱 2(161), 원희문 10(205), 정월균 2(36)
- ▶ 28기 권승영 2(21), 권양철 2(101), 김진길 2(72), 김창현 2(158), 박기수 2(83), 박용섭 4(157), 서청수 2(164), 유정일 2(34), 윤석찬 2(132)
- ▶ 29기 김강식 2(237), 김용식 2(66), 김태영 4(14), 박성훈 2(145), 박태용 2(124), 이상일 2(180), 이의규 2(107), 임성호 2(153), 최인섭 2(118), 현태식 2(142)
- ▶ 30기 김종권 2(76), 김호성 2(36), 남진오 2(47), 이병길 2(11), 이진 2(141), 임상달 2(111), 주경호 2(104), 최재봉 4(10), 홍성범 2(23), 함민호 2(92)
- ▶ 31기 권동호 4(44), 김민식 4(82), 김영태 2(174), 김희엽 2(218), 박서호 2(12), 염홍수 2(128), 이재춘 2(202), 이훈복 2(40), 최대집 2(38), 전경민 2(25)
- ▶ 32기 김화용 2(105), 송진수 5(61), 이태현 1(39)
- ▶ 33기 고희용 2(25), 김상선 3(133), 김성수 2(221), 김충민 2(12), 김현규 4(373), 남석진 2(129), 노일 6(140), 안경일 2(226), 안준영 6(104), 이정표 6(53), 조재봉 2(102)
- ▶ 34기 권성진 2(123), 김기수 2(172), 김운성 2(36), 김홍식 6(411), 임창훈 2(73), 정웅민 4(195), 정창근 2(98), 정춘황 2(49), 조수창 2(173), 홍영기 2(17)
- ▶ 35기 김경철 1(1), 김병수 2(70), 김수열 2(61), 박병준 6(284), 박상천 2(13), 박시근 2(175), 송명성 4(46), 이문희 2(141), 임창규 2(99), 장춘삼 2(136), 전성광 2(29), 정경덕 10(12), 정영석 2(97), 정호준 4(78), 황재혁 2(9), 하종수 2(16), 한종훈 4(351)
- ▶ 36~57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바랍니다. **지면제한으로 부득이 모든 기부자명단을 기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양해 바랍니다.**

●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 1 47~56기 졸업생 기부자는 국제형 연말정산서비스에 12월 말 입력예정(우편발송 없음)
- 2 상기와 졸업생 또는 학부모, 그외 기부자는 재단인터넷홈페이지 영수증발급하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개인이 발급 가능합니다.
- 3 개인명의 기부자가 단체/법인명으로 발급을 원하는 분은 재단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기부자 예우 기준 변경(학교달력 발송)

그간 1백만원 이상 기부자부터 학교카렌더를 발송했으나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심사법을 신설하고 올해 적용하여 고유목적사업비:경상비 비율을 70:30에서 80:20으로 강화됨에 따라 경상비의 축소와 대상인원 증가 및 우편료 인상을 반영 할 적법한 예산편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부득이 기존의 달력발송대상 기준을 조정(100만원→500만원 이상)하게 됨을 알려며 목적사업에 집중하라는 정부방침 준수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9.28. 3사발전기금 지정기부단체자격심사 통과)

1기(총성회) 임관50주년 기념 모교방문 행사

11월 19일 1기 졸업생 임원진의 모교방문을 하루 앞둔 목요일 많은 폭우가 내려 흐릴 것 같았던 날씨가 다음날 화창하게 개어 1기 총성회 회장단 15명 방문행사는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방문한 1기 졸업생 요청에 따라 50년 전 땀 냄새와 기억을 더듬어 갖은 역경을 이겨냈던 화산유격장을 둘러보고 오후에 3사관학교장(장달수 소장)과 주요직위자, 사관생도 예도단의 환영을 받으며 모교를 찾았다. 이어서 학교소개와 환담, 학교발전기금 전달식 등을 가지며 감회에 젖었고 졸업생들은 충성대의 장남으로 그동안 부끄럼 없이 살아왔고 이제는 후배들 덕에 자긍심을 갖는다며 공통적인 소감을

전하였다. 행사간 김운태 1기(총성회) 동기회장이 모교방문 행사 간에 미참여 동기생 전원 1인 1만원 참여의 의미를 담은 학교발전기금 5백만원을 생도대장 겸 재단이사(김호복 준장)에게 전달하며 훌륭한 후배장교 양성을 당부하였다.



발전기금 참여안내

-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명은 띄워쓰기 없이 6자 이내로
 • 졸업생 → (예시) 00기김삼사, 우인/단체 → 입금 후 재단연락
 • 재학/졸업생 부모 → (예시) 57박조국부, 56이충성모, 00홍길동부
 • 세금정산용 영수증 발급 및 기타문의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054) 330-3180, 3182



“기부자의 따뜻한 손길은 학교발전과 국방우수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됩니다”

